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브루디호프 공동체의 기독교 선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동체

소금과 빛

이 전자책을 여러분의 벗들과 나누시렵니까?
원하시는 대로 벗님들에게 보내십시오.
다만 원문을 부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본 책을 방대한 발행을 위해 대량 복사하거나 뉴스나
잡지류에 재출판하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
건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책을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다음 크레딧 라인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Used
with permission”

이 전자책은 플라우 출판사의 출판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Farmington, PA 15437 USA (www.plough.com)

Robertsbridge, East Sussex, TN32 5DR, UK
(www.ploughbooks.co.uk)

Copyright ©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Farmington, PA 15437 USA
All Rights Reserved

Salt and Light
소금과 빛

에버하르트 아놀드 지음
번역 장영표

산상수훈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산상수훈을 접해봤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인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신다(마 7:24—29).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거기서 골라내서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가며 맘대로 요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씀을 오용하도록 놔두지도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수천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 해석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자기포기와 순종이다.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토론되어지길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진정으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다.

Dietrich Bonhoeffer 디트리히 본회퍼

독자에게

<소금과 빛>은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사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책으로 만들어졌다. 책에 포함된 각 장의 내용들은 1915년에서 1935년 사이에 있었던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기사, 좌담, 강의들을 브루더호프 공동체 형제들이 수집하고 번역한 것이다. 아놀드는 성인이 된 이후로 온 생애를 산상수훈과 씨름하며 살았다. 산상수훈의 요구를 이행하려는 그의 충성된 삶은 그 실제적인 열매로 공동체 운동을 태동시켰고 그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번성하고 있다. 비록 이 책의 내용은 아놀드가 정치·사회적 동요와 혼란 속에 있는 독일인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의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오늘날 파산 상태에 놓인 우리를 혁명적인 새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차례

- 1장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 2장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
- 3장 소금과 빛
- 4장 행복
- 5장 새로운 정의의 본질
- 6장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7장 타협과 어둠에서 떠나십시오
- 8장 살인과 폭력을 반대합니다
- 9장 더 나은 의
- 10장 하나님이나 맘몬이나
- 11장 맘몬과의 싸움
- 12장 맘몬과 살아 계신 하나님
- 13장 결단
- 14장 자기포기를 통한 저항
- 15장 생명의 영은 승리합니다
- 16장 현재 경험과 장래 나라
- 17장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머리말

“산상수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책의 서두를 이끌어내는 이 질문은 모든 세대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질문이며 각 세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자신의 답변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 세기에 걸쳐 동일하게 산상수훈의 강력한 도전에 조건없는 철저한 제자도로 응답하는 공동체 흐름이 하나 존재해 왔다. 그들 중에 왈도파(Waldensian), 후스파(Hussites), 재세례파(Baptizers), 후터파(Hutterites), 메노파(Mennonites), 퀘이커교도(Quakers) 그리고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브루더호프(Bruderhof)의 목소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 예수님의 길에서 시간의 격차는 그 의미를 상실하며 과거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마치 오늘 우리 곁에 있거나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정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실제로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이다.

산상수훈에 대한 아놀드의 해석을 읽으면서 나는 뢰른(Rhoen) 언덕에 자리잡은 한적하고 가난한 살림의 컷 브루더호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때 갑자기 어떤 개념들 간의 연관성이 머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무조건적인 제자도, 제자도와 열두 제자의 공동생활, 그리고 형제애의 삶과 이 지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뺄 수 없는 연관성이었

다. 이것들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산상수훈이 새로운 도덕률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참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의 선포라는 사실을 아놀드는 이 책에서 보여준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제자도의 명예를 씌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 아놀드는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목표나 불필요한 시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삶은 단순하고 분명하며 단호하다. 많은 의심과 타협과 반쪽짜리 진리와 미지근한 태도는 사라진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나누어지지 않은 전적인 헌신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놀드는 제자도와 공동체 생활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 힘과 피할 수 없는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 제자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게 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제도권 교회가 이처럼 철저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자문해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묵은 편견들을 버리고 이단자 색출을 그만두어야 한다.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메노파(Mennoite)와 후터파

(Hutterite) 공동체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결코 편협한 광신자 집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이다. 정말이지 그들의 존재는 제도권 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에 비판적인 의문을 던진다.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들을 그동안 스스로 던져왔다. 어떻게 하면 제도화된 기존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본다. 우리는 세상을 경멸하는 독선적인 기독교 분파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교회를 갈구하는 것이다. 브루더호프에서 보듯이, 이 교회는 열려 있으며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버림 받은 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

아놀드는 기독교 소망의 현실성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 아놀드는 이 다가오는 나라를 ‘하나님의 장래 나라’ 라고 자주 부른다. 신약성경에서처럼 그는 ‘하늘의 도성(the heavenly politeuma)’ 을 얘기한다. 그는 이 지상에 임할 나라를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한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이 지구를 생태파괴와 전쟁과 원자폭

탄의 공포에, 그리고 그런 위협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들에게 내맡길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문명의 진보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는 지구의 파괴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아놀드는 그의 소망에 있어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지상적(earthly)이고 물질적(physical)이며 또한 전체적(holistic)이었다.

아놀드는 한때 브루더호프를 ‘하나님 나라의 한 씨앗’ 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 씨앗은 사도들이 말한 땅에 묻힌 씨앗 한 알처럼 나치(Nazi) 시절에 ‘죽었다’ . 하지만 이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맺고 있다. 이것은 적지 않은 희망이다.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공동체들처럼 브루더호프는 때로 매우 어둡게 보이는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뒤통아래 놓여(마 5:15)’ 숨겨져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더 많이 받게 되기를 기원한다.

Jurgen Moltmann Tubingen, Germany 유르켄 몰트만
독일 튀빙겐

서문

오늘날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는 그의 생애 동안 모국인 독일에서 대중연사로, 강사로, 그리고 출판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브레슬라우(Breslau)와 할레(Halle), 그리고 1909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에어랑겐(Erlangen)에서 공부하는 동안과 공부를 마친 그 이후에도 그는 당시 그 지역을 휩쓸던 학생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나중에는 독일기독교학생연합(German Christian Student Union)의 총무로 일했다. 1916년에 그는 베를린에 있는 푸르체(Furche) 출판사의 문학부서와 월간지 편집 책임자로 일했다.

1920년대의 수많은 독일 청년들처럼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그의 아내 에미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사회 문제에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기관들 - 특별히 교회 - 에 환멸을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독일청년운동(German Youth Movement, 당시 아놀드는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큼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과 독일 목사인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와 그 아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 16세기 재침례교도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에버하르트는 진지하게 해답을 찾던 그 시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탐구의 여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자주 모였고, 나는 성경공부와 대화를 통해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것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여,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깊은 관점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필요, 물질적·사회적 필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굴욕과 착취와 노예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맘몬과 불화(不和)와 증오와 폭력의 엄청난 세력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힘없는 자의 목을 짓누르는 압제자의 잔인한 구둑발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다소 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xiv]

그무렵, 그러니까 1913년부터 1917년 사이에 나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개인적인 헌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표현하

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다가간다면, 또는 그들도 나처럼 사적(私的) 신앙을 갖도록 개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나는 힘겨운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옛 문헌들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 체제에서 압제 당하는 사람들인 노동자 계층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과 아씨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길과 선지자들의 길에 상응하는 어떤 길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나는 친구에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글을 써 보냈습니다. 예전의 나는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실제적으로 인류 전체를 섬기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하려 했던 그 대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확립하는 일이나 자신을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한 젊은 장교는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채 돌아왔습니다. 그는 애정 어린 간호가 매우 절실한 상태였고, 그걸 기대하며 약혼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몸이 건강한 남자와 이미 약혼한 사실을 그에게 말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는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터닙(turnips)”이라고 부르는 무 뿌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돈이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도 “배고프면 터닙을 먹으시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당시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젓소를 소유하고 우유를 짜서 먹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심지어 베를린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실은 수레들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시체들은 신문지에 둘둘 싸여 있었습니다. 관을 살 돈도 없었고, 아이들의 시체를 관에 넣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1917년, 나는 거리에서 말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마부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아직 따뜻한 고깃덩어리

를 베어내어 가족에게 가져가기 위해 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즈음 또, 나는 지하실에 사는 한 불쌍한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방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핵을 앓고 있었지만 친척들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일으킨 먼지 때문에 좀처럼 창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만한 다른 장소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짓하기 싫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이곳에서 죽게 놔주세요” 그 여자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혁명기의 일들을 겪은 후에, 나는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학생운동의 한 지도자는 내가 전쟁과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의 일을 도와주겠다는 어떤 고위 관리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베를린의 우리 집에 모여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토론하는 가운데 곧 한 가지가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 이상의 것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한 벌은 없는 자에게 주십시오.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꾸고자 하는 이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 일해 줄 것을 부탁 받으면 두 시간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애쓰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가족을 가지고 싶으면 가족을 가지고 싶어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교육과 일과 만족스러운 활동을 바란다면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능하도록 만드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당신의 의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동일한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 이요 선지자입니다(마 7:12).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백해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려면 결단처럼 가난해져야 하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류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를 스스로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내며, 불의가 세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보다 정의에 더 굶주릴 때에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이 정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의가 도덕 주의자들과 신학자들의 의보다 더 낮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새로운 불과 새로운 영과 따뜻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속에서 예루살렘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산상수훈이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되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특권이 나 권리는 조금도 남김없이 포기하고, 완전한 사랑의 길에 온전히 투신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호흡에 의해서 이 땅에 부어질 사랑이며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형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셨다

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으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황과 질서를 완전히 바꾸게 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에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요구를 실천하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다섯 명의 아이들과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놀드 부부는 1920년에 자네르쯔(Sannerz)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공동체는 수천 명에 달하는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26년이 되자 자네르쯔의 집이 매우 비좁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처소)는 뢰(Rhoen) 언덕 근처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다.

브루더호프는 1930년대 나치정권에게 박해를 받아 독일에서 추방되었다. 이웃 나라인 리히텐슈타인에 잠시 머무른 후에 브루더호프 식구들은 영국으로 피해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다. 여기서 출판사가 처음으로 착수한 주요 작업은 이 책에 포함된 기사와 좌담을 포함해 에버

하르트 아놀드의 가장 중요한 여러 저작물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1940년 브루더호프를 파라과이로 내몰았다. 그리고 1954년에 첫 번째 미국 브루더호프가 세워졌다.

이제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다음 글과 함께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한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지배하는 장래 나라와 건설적인 친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다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래를 실현시키실 것이며 그분의 마음과 영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다가올 나라의 살아있고 감추어진 씨앗인 자신의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평화와 미래 나라의 사랑의 영이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의(justice)와 평화(peace)와 기쁨(joy)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플라우 출판사 편집자 일동, 1998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러 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겂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네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낮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쪼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쪼미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

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 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밧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시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곳을 찾아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
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1장

산상수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헌신은 새로운 율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성령의 빛과 성령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금의 본질이며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의 생명력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서의 공동체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높은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인간 삶에서 실제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려놓는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톨스토이주의자처럼 산상수훈을 다섯 가지의 새로운 계명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 「나의 종교」에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명을 다섯 개의 새로운 율법, 즉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성적으로 순결하고 결혼에 충실하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옛 율법의 명쾌함과 요구 사항들을 약화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는 오백가지, 오천 가지도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지식인이나 신학자들의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는 절대적으로 다르며 인간의 윤리적 의도나 훌륭한 개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옛 율법의 의는 오직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유기적인 삶의 방식(organic way of living)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빛같이 타오르고 소금처럼 정화하는 생명,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으며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

2장

우리는 흔히 참으로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인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아무런 특별한 목적 없이 그들을 이끄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모두 한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품이 산상수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어린아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이런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매우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제가 깊이 고민하던 중요한 문제들이 저에게 명백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몇 마디로 그것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라리 산상수훈을 있는 그대로 읽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밤낮 생각할 정도로 깊이 감동 받고 영향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선함과 사회적 사랑(social love)은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윤리적 교훈이나 경건, 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소금과 빛과 산 위의 동네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도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의 핵심, 또는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본래적인 성질과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비한 치료제일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며, 총체적인 부패와 파멸에서

세상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변화시킬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요소일까요?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로 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미래에 속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일치를 이루고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편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인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 앞에서 자기 자신은 걸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 마음과 사랑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일치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위해서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통 이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소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들은 맘몬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재물이 없고 은행에 맡겨둔 돈이 없으며 집이나 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위에 재물을 모으지 말고 사랑 안에 재산을 모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만이 당신의 전 재산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또 정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꺾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사람들은 당신을 풍성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보물이며 재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꽃과 새와 함께 살 것이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는 새들과 하나되고, 어떤 사치스러운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옷 입은 꽃들과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새로운 성질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빛은 차가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화덕이나 램프에서처럼 별장계 달궈지며 타오르는 빛입니다. 이 빛은 햇불에서 나오는 빛이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집들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랑 안에 존재하는 진리의 빛이며 진리와 정의와 순결 안에서 기뻐

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열정에서 나오는 정욕적이고 침울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하며 믿음에 불을 지피는 사랑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이 소금도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빛과 소금은 같습니다.

사랑의 선언문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 또한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음은 충실하고 진실한 관계,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은 이런 것들을 이겨냅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세함으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는 그저 예나 아니오만 말하라. 온전히 참되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결코 어느 누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겹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서 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한 시간 일해 줄 것을 부탁하면 두 시간 일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비록

성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은 일종의 온전함을 띠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서툴러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정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이요 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것을 소원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당신도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십시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참되고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사랑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의 결속을 맺읍시다.

소금과 빛

3장

소금의 본질은 소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의 핵심은 그 역할에 있습니다. 소금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미래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금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감정에 일치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들 안에서 사랑과 의와 순결을 드러내며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품을 다가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가오는 나라는 부패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죽음과 생명이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소금은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소금을 주사해서 죽음을 뒤로 미루고 장기의 재생력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는 그 자체가 죄이며 세상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입

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예방하고 세상의 죽음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지니고 있는 한, 소금은 이 세상에서 악이 활동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더 이상 소금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죽게 될 것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짠 맛을 내겠습니까?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는 것 외에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마 5:13). 소금은 본질에 있어서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음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은 오늘날의 시대가 소금으로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는 소금 없는 세상은 정녕 죽으리라는 지속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이 맛이 나지 않듯이 교회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세상의 소금인 양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죽음과 부패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그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앞에는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목표이자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 주는 한 존재, 바로 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둘러싸인 물질과 다를 때, 그리고 소금 자체가

썩지 않을 때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분명 내버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살아남은 곳이며 다가올 새 질서의 힘이 유기적인 생명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힘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에 소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부패한 것을 정복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깨우시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그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마음을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시며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탄생을 이끌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 모든 생명을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타락한 도덕성과 위선적인 사회 관습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금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부패에 물들지 않는 담대하고 소박한 용기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고 간결한 말과 꾸밈없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악의 눈이 온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것을 뽑아버리려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것의 약속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면적이고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유, 모든 소유와 시간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친구와 형제자매들만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보물에 욕심내지 않는 자유이며 재산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만이 세상의 영에 대적하는 소금이며, 그 소금이 사망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소금 이외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금처럼 행동합니다.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성되는 소금이 아니라 스스로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는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바로 그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소금, 이 생명은 오직 불 속에서만 타오를 수 있는 빛입니다. 불이 없이는 누구도 빛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암흑의 행성인 해왕성이 눈부신 태양으로 바뀔 수 없고 달의 차가운 빛이 한낮의 열기로 바뀔 수 없습니다. 검은 석탄에 불을 붙이면 따뜻한 열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열과 빛을 내려면 석탄은 타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촛대 위에 있는 불빛은 온 집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빛은 가족의 친밀한 화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데 이는 빛의 생명이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초를 아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빛이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타고 있는 귀한 빛을 덮어 감춘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타고 있는 양초에서 공기를 빼앗으면 발하던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빛으로서 가지는 특징은 온전한 광채와 따뜻함에 있습니다. 옛 생명은 불에 완전히 타서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부끄러운 것들은 어둠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빛의 광채는 명쾌함과 솔직함과 단순함과 순결과 진실과 진리로 통합니다. 예수님의 영향으로 진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참되고 순수하게 됩니다. 빛은 잘못되고 거짓된 모든 것과 숨으려고 하는 모든 것의 정체를 밝히며 세상 도처의 어두운 곳으로 비쳐 듭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빛은 상황을 명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그 빛의 밝기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빛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적인 인식과 조직적인 사고의 명쾌함과 예리한 분별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처럼, 생명을 소생시키는 따뜻함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발산되는 광채에 속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로 모읍니다.

햇빛은 생명으로 넘치며 지구 위에 생명을 낳습니다. 햇빛은 생명이 어디서나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속하며 햇빛 속에서 그들의 길을 발견합니다. 밤은 차갑고 어둡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빛과 태양의 생명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낮과 밤 사이를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어떤 빛도 광채와 따뜻함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인자께서 빛을 발하시면서 가장 격렬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고통과 죄, 그리고 자신의 죄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빛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 빛이십니다. 부패한 옛 생명을 불태우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위에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은 온통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것이나 불결한 것이나 사랑이 없는 것이나 탐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가짜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듯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태양도 우리의 시선을 그 자신으로부터 돌려 그 빛을 받는 생물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 자라나는 언덕과 숲과 들판을 바라볼 때 ‘태양’에 대해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지만(마5:14) 만약 태양이 그 동네를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동네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빛과 따뜻함을 내려보내는 곳에는 생명이 깨어나며 살아있는 것들의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촛대 위에 있는 촛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공동체의 빛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공동체는 경제와 운영과 노동의 공동 참여와 믿음과 기쁨에 있어서 유기적인 일치를 이룹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알리는 탑은 사방 먼 거리에서도 보입니다. 이 탑은 시민의 자유를 나타내는 표적이며 공동체 생활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믿음의 친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런 동네는 숨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의 열린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수님은 수상쩍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태양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빛은 인생살이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나 친구에게나 똑같이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금과 하나님의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임무는 모두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소금과 이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삶의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책임을 포함해 일반 사회생활에서 산 위의 동네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소금의 저항 없이 부패의 독이 자리잡도록 허용되는 곳은 없어야 합니다. 불의가 어둠속으로 잠복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밤의 공포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존재하는 한 중오의 죽이는 숨결과 마음의 냉담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밀은 소금의 때묻지 않은 진실성과 명쾌함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동네는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가장 먼 곳의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과 아주 다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친구의 핵심적인 속성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어떤 정부나 어떤 교회나 어떤 정당이나 이 시대의 다른 어떤 조직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생명을 섬기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산 위의 동네는 모든 고통과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고통에 굴복하여 스스로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소금과 빛으로 남아야 합니다. 장래 나라의 씨앗이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

4장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친구들과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새로운 질서가 자신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에까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정의의 새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정의가 사랑과 은혜의 범위 에 세워진 사회적 정의여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의와 은혜는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본질과 실제적인 결과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본성과 말씀 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룩한 생명의 법칙에 순응하며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윤리적 명령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본성을 분명히 분별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본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므로 복이 있습니다. 다가올 나라가 저희 것이며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장래 나라의 영이 지닌 모든 특징들의 통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전체 구성을 무시하고 어느 한 문장을 뽑아서 단독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만약 비폭력이나 마음의 순결함, 그리고 다른 어떤 도덕적 혹은 정치적 요구를 단독으로 떼어내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순결함이나 평화를 위한 단호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집니다. 삶의 한 영역에서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팔복은 따로따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

라에 속한 사람의 심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혈관들을 해부해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는 없는 심장 말입니다. 이 때문에 팔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갈망하고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사랑이라는 재산과 평화를 이루는 힘, 그리고 모든 저항을 극복하는 승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본질은 순결함과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고통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서 자신들이 거지라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대망하며 성령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풍족함이 주는 행복도 욕망의 실현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깊은 행복이 열린 눈과 열린 마음 앞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느끼는 곳에 하나님과 그가 주는 풍요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궁핍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아는 것이 참된 종교체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마음은 확고하지만 영혼은 약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불의의 고난, 이처럼 서로 대조되는 요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종교적인 만족과 도덕적인 자기만족이 있는 곳, 정치적인 업적들이나 선한 일들로 자기

의 (self-righteousness)가 드러나는 곳, 누구든지 부유하고 만족을 느끼는 곳,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친교에서 오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정의를 믿으며 그 나라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제자도의 단순한 길을 걷는 데 있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불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알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언제나 성령님과 그 분이 예언하신 완전한 사랑의 정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인류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동시에 부유합니다. 이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기는 하지만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통,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대적자의 훼방이 폭풍우처럼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반대를 극복하며 사랑으로 적개심을 이겨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사랑

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9).

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디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씨앗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으로 주저앉는 곳,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함을 느끼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 그곳에서 이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를 향한 혁명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곳, 전쟁과 대량 학살을 반대하는 항의가 울려 퍼지는 곳,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평화주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곳, 그리고 마음의 순결과 자비가 있는 곳, 이러한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하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말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시인할 때만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져오는 정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때 그 외 다른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새로운 정의의 본질

5장

산 상수훈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직면하게 합니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때 몸을 돌려서 사람들을 일일이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도전의 서막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가 주는 것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느끼고 있으므로—에게만 행복과 부유함을 가져다주십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노력이나 정력적인 경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 단지 요구하는 것은 마치 진공상태와도 같은 텅 빈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보여 줄 것이 없는 전적인 가난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눅

6:20—22). 이 구절들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비방을 당한다는,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을 안다는 단순한 사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또한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칭찬 받는 자여(눅 6:24—26).” 소유물이나 실물자산이나 기타 감탄할 만한 것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일반적으로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것들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라도 이 화가 적용됩니다. 그 화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초적인 필수 조건, 빈상태(being empty)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은 그 밑바탕에서는 심령의 가난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와 윤리와 지혜가 전혀 없는 빈상태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 애통해 하는 마음이며, 온 인류의 죄와 각자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필요와 가장 깊은 심령의 필요 때문에 애통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따르는 핍박과 멸시는 도덕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정의 때문에 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정의는 누구보다도 재산을 소유한 채 의롭고자 하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종교적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의 본질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그것

은 가난함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의 비밀입니다. 또한 초기 유대교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레 요한이 선포한 근본적인 변화의 비밀입니다. 세레 요한은 예전의 선지자들이 그려왔던 피조물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습니다. 세레 요한은 이 새로운 질서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세레 요한은 하나님을 각 사람을 위한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친교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미래의 정의 속으로 자신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이 지상의 현세적인 삶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에게 미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새로운 정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이시며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시는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사람의 선함과 업적이 자리를 잡은 곳에서는 이런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 위에 단 한 번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정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현존하고 성령 안에서 활동하며,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고로,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런고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선함이나 고귀함에 대한 자의식도, 권리의 주장도, 사람들 사이의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여기서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산상수훈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몸과 영혼의 타고난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창조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하며 소금이 되어야만 하며 또, 너희 자신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멸시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사심 없는 헌신, 이것이 예수님과 그 나라의 본질입니다. 오직 그러한 사랑에서만 사림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이 새로운 사랑의 삶은 일치와 노동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이와 같은 일치와 노동의 공동생활을 인위적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되는 것처럼(롬 8:2), 성장과 생명을 가져오는 창조의 법은 인간의 노력과 대조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것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명의 법칙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는 곳에서만 산상수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상수훈은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적인 공상이나 자기기만, 광적인 망상으로 남게 됩니다.

땅에 묻힌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모든 이를 위해서 열매를 맺듯이, 성령에서 싹튼 생명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끌어안을 선물입니다. 이 생명은 사망의 원수이며 증오와 살인과 인간적인 노력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자유롭게 하는 사랑만이 생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적인 영역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을 선언하고 그 생명의 선물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인과 선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구별 없이 모두에게 태양을 비추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도

덕주의자들과 신학자들의 의와 구별시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선을 굽고 차별하고 담을 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입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있어서 자비를 원하시는 만큼 외적인 면에서 정의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를 간단한 말로 요약합니다. ‘사랑하라! 진심으로 자비를 베풀라!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거나 비판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네 원수를 선대하라!’ (눅 6:35—38)

이런 화해와 무저항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반감일 경우에도 더욱 시간과 힘과 생명을 쏟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랑은 반대에 부딪힐 때 더욱 자극을 받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또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만 더욱 심화됩니다.

우리는 ‘이웃’ 과 ‘원수’ 와 함께 살고 있으며, 오직 그 ‘함께 삶’ 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이웃과 원수들, 그 둘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원수를 동등하게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사랑 —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한 — 은 무조건적인 원수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웃과 원수 모두에게 넘쳐흐르는 사랑

의 선포,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사랑은 이웃이나 원수 모두에게 성실하고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예’와 ‘아니오’, 그리고 혼인서약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쁨과 어려움들을 아울러 관통하는 사랑의 성실성을 상징합니다.

감히 이런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듭해서 창조주인 무한자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심연 앞에서 전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발을 디디고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은 티없이 맑은 순결과 무한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기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이며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다시금 우리를 산산이 날려버릴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슴은 무한자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정죄받고 동시에 용서 받으며, 너무 가난하면서 지나치게 부유하고 또한, 죽음에 처하면서 동시에 소생합니다.

미움과 차별적인 애정은 여기서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조차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요란하고 유별난 일은 끝이 나야 합니다. 창조는 소리없이 일어나고, 생명이 싹트는 일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사들과 은하계가 하나님을 영원 속에서 경배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

터 오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순결하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숨겨진 것 속에서 생명을 찾으십니다. 외진 산과 불모의 초원과 홀로 남겨진 닫힌 방안은 최후의 결정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 격리된 시간들은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이 시간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며 오직 한 가지에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그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변화되고 모든 이가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선포 한 가운데에도 산상수훈이 놓여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근본부터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유혹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 온 세상을 뒤엎을 파멸적인 격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긴박한 최후의 결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최후심판의 긴박함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자세가 태동되어야 합니다. 그 자세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으로서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보물만을 생각하십시오(마 6:20). 당신의 열망은 오직 한 대상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러가지 일들로 분주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향해져 있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분열된 마음은 어두움과 심판으로

이겁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마 6:24). 마음이 열망하는 대상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생활에 대한 염려는 부를 축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맘몬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를 염려와 소유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새와 꽃이 보살핌을 받듯이 새로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처음이요 나중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풍성한 음식과 의복이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삶의 단순한 법칙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먼 앞날을 걱정하면서 자신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린아이와 새와 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일생입니다. 비록 날마다 그들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은 죄와 실패로 좌절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산상수훈 앞에서 날마다 당신의 무력함을 수도 없이 직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은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마 7:7).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지나 큰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문은 좁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도전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눅 11:13) 당신은 악할지라도 당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참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양(羊)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지닌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며 악탈을 일삼는 인간 세계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표적과 선전과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에 속아서 안 됩니다. 양의 가죽 뒤에 숨은 이리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리는 덮치고 강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마 7:6).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재판관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만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법정에서 같은 편 의자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를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

훈은 우리의 악한 열매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악한 나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좋은 열매와 모든 사람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새 생명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종말의 대재앙에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부서진 벽돌 더미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 행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도덕적인 노력과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열성적인 수고, 그리고 계명들과 금령들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악한 성향을 억누르고 억압하며 광적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인간적인 힘을 다해 ‘늘 빛이 사라지지 않고 공기도 더럽혀지지 않는 산’을 오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정의를 가져오십니다. 이 정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다른 정의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의 변하지 않는 명쾌함을 폐하시거나 약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도덕적인 계명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양심 속에 심어놓은 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에서 성소(聖所)가 사라진 사람들은 거짓과 증오와 탐욕의 사악한 세력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사망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인 정신이 밝혀져 몸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율법의 윤리적 계명들과 도덕적 금령들의 한 글자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명령들은 우리 내면의 부르심인 거룩한 ‘의무(thou shalt)’와 우리 내면에 새겨진 거룩한 ‘계명(must)’, 그리고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는 유일한 절대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명들을 하나 둘 거부하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고 실체가 되기까지는 당신의 신성을 명령과 금지의 고정되고 굳은 형태로 표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진실한 방법으로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판에 문자로 새겨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탐욕이 지배하면서 예수님의 진실성과 순결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으려면 그곳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일반대중에게는 정부의 공권력과 조목조목 기록된 법률이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끊는 증기가 보일러를 터뜨리고 증발할 수 있듯이 공권력이라는 무쇠와 법률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회의 적대적인 요소들은 모든 것을 터뜨리고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그들의 인생 전체는 곧 달라집니다. 일치의 영에 의해 그들은 더욱 친밀해지며 신비한 몸의 유기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무력과 강요의 필요성과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영은 법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새로운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의는 — 하나님에게서 난 선한 마음과 유기적인 힘 — 이므로 — 모든 인간 존재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나라의 정의이며 더 이상 현행 법률관계들의 일면인 속박과 침해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하나님의 선(善)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는 약해질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길 원하는 생명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의 모든 힘을 보여줍니다. 법률적인 규칙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이 선에 도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정의는 결코 생명을 꽃피우지도 못하며 생명을 충만하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로부터 샘솟는 것이 아닌 어떤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힘겨운 압박만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도덕

적인 목적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판보다 실제로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바르며 존경받는 경건한 인물들이었으며 자기 민족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선물인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자유의 영이 없었습니다. 이 영이 있어야만 생명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모방되거나 창조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사랑의 수고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적인 숙고나 결심이나 노력도 도덕과 율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윤리와 도덕주의를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곳에서는 실제적인 사랑이 죽은 도덕주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의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고 어떤 고립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퍼뜨리며 온기를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을 원하시며, 오로지 나눠주심으로 존재하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새로운 정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곳은 살아서 따뜻하게 고통치는 마음의 정의가 차가운 율법판을 대신합니다.

타협과 어두움에서 떠나십시오

7장

우리는 타협이라는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타협의 문제는 어디에서나 일어나며, 진지한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의 문제 뒤에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악과 죽음의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악과 죽음은 너무나 막강해서 선과 생명이 늘 삼켜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움과의 타협과 무관심이 갈수록 커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악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법률 용어로 법정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뜻합니다. 타협은 법률 분쟁이 있는 곳에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중재 법원은 타협을 강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타협이라는 최고의 법률적 정의를 산상수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인 더 나은 정의로 대체할 수 있는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법정 싸움의 위협에 직면

했을 때 생명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가져가도록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수고를 해야 하는 힘든 요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사랑과 기쁨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소식입니다. 기쁨은 살인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양보하지 않을 때 마음은 순결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mammon과 화해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기쁨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사랑은 악과의 타협을 묵인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는 무관심이나 살인적인 불의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어루만지며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며 예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운동(movement)은 이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명력 있는 활동이 죽은 곳에는 이 그리스도의 길이 버려집니다. 더 이상 죽음과 씨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생명을 위한 몸부림을 그만둔 채 죽음의 그림자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할 때, 죽음의 과정은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와 타협하는 태도가 거점을 확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싸우게 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회피하는 즉시, 어김없이 죽음이 이 모든 운동을 위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의 기초 위에 살면서 동시에 은혜의 기초 위에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폭력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또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율법주의와 광신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죄악에 폭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이 타협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이들이 예수님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죄의 완전한 용서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만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만 한다’ 와 ‘~은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율법적인 계명과 금령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경험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일 4:20)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은 용서로부터 오며 용서가 그 본질인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제자도입니다. 이 길은 냉혹하고 사랑 없는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로잡은 사랑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악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은 인격의

타락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다시 주관하게 되면 최고의 목표가 다시 나타날 것이며 마음은 다시 살아나서 충만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는 이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요일 1:8).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신 중재자가 계시다(요일 2:2). 그 안에 머무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요일 2:2).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 죄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이다(요일 3: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능력에 속한 것이다(요일 5:19).’

죄를 변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악에서 등을 돌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시는 용서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완전무장을 하고 모든 악과 심지어 죽음 그 자체에까지도 대항하여 싸운 군사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은 싸움에 임했을 때 결코 연약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굳게 결심한 사람은 평화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동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동료들을 악한 자나 쓸모 없는 자로 혹은 죽어야 마땅할 자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각 사람 안에서 더욱 더 치열하게 치러져야 하며, 생명에 해를 끼치고 친교에 적대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으로 가득하고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싸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냉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공적인 일들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정열적인 사랑으로 싸울 때는 다소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모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악에 대항하는 공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나 심지어 율법주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과 모든 인간 업적과 제도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의 윤리는 세 가지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

들의 성품, 사랑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다가울 장래 나라에 사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오랜 주제인 ‘완전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러하듯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악의 필연성과 죄에 속박된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휩쓸리는 일에 자신을 맡겨버리도록 만듭니다. 알갭게도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세상의 평화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정부가 없는 상태를 거부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현재 사회 질서가 탈바꿈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끊임없이 참된 사랑의 자명한 표현이 되어온 공동체 삶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그들이 더 이상 악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단언하신 결정적인 선택, 즉 하나님과 맘몬 사이의 선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마 6:24).

사람들은 “예”나 “아니오”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도전을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역설적인 상황을 느슨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저 헛되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거나 “아니

오”와 “예”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 대해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집하셔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온갖 악에 대항해 싸우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요일 3:8).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 1:5).”

살인과 폭력을 반대합니다

8장

한 민족의 삶, 인간의 생존 경쟁, 그리고 국가간의 갈등에서 누적되는 긴장들이 계속해서 폭력적인 형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충돌은 탐욕스러운 열정을 지닌 인간의 잔인한 본능과 상호 착취와 억압을 드러냅니다. 난폭한 격정의 폭발과 거기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단성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적인 수단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피 묻은 주먹으로 싸우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여기면서 다른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더 먼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므로 생명의 신비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도 나머지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와 일치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한 몸의 지체며 기관들입니다. 이 몸의 영과 머리와 마음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건강한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빛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마 5:45).

생명은 성장과 발전을, 그리고 사랑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폭력과 강제는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섬기고 성장시키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죽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있는 것을 소생시켜서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발전과 격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진화나 격변도 세상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인 보편적인 죄, 중오와 탐욕과 부패, 그리고 살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유기적인 생명은 모든 생명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김없이 분리와 고통스러운 해방과 옛것에 대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 — 진실로 인류 전체 — 에 이 새로운 탄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탄생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빛의 생명입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다가올 나라와 건설적인 친교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오늘 이곳에 가져 오실 것이며, 그의 마음과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살아계시며, 교회는 그의 생명의 구현체입니다. 다가올 나라의 살아있는 씨앗이며 숨겨진 씨앗인 교회에는 그것의 특성인 평화와 미래의 사랑의 영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살인과 폭력과 죽음의 세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만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심지어 그 값이 우리의 생명 일지라도, 평화와 사랑을 위해 싸우고 증거해야 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비폭력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절대적인 사랑의 인내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폭력이 아니라 오직 더 강한 사랑으로만 세상의 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천하만국을 다스리라는 유혹을 물리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현재와 미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하심

과 고난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랑에 능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소유하게 될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평화와 정의에 대한 구약의 선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살인을 배제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중대한 말의 뜻을 더 깊게 하셨습니다(출 20:13; 마 5:21). 예수님은 어떤 잔인함과 내적 생명을 침해하는 어떤 난폭함도, 마치 꼭 옥신을 죽이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과 초대 교회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과 군대는 기독교의 소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증거를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악과 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의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 것이라는 것과 이 땅과 인류가 새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진화론이 아니며, 더 큰 완성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양심 속에 있는 거룩한 씨앗의 성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개인의 거듭남과

교회의 친교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세상의 대재앙을 통한 변혁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전쟁과 혁명과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대재앙들을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일어날 심판과 멸망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서나 일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다가올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반기독교 세력과 그리스도의 생명 사이의 긴장관계는 오늘날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철저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 긴장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반기독교 세력과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세력들 간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이 와야만 하고, 그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오히려 이 대결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끓주린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전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던 만큼 그들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개인의 거듭남을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평화와 정의로 질서 지워진 미래세계를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언어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써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신선하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성으로 가는 도정에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문명의 법과 이론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치 말지니라”라는 격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충실하게 존중했으며 순종했습니다. 미래에 믿음을 두고 세상 법전에 실리지 않은 법에 순종하는 선의의 소수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지난번의 끔찍한 전쟁 중에도 군인으로서 적군에게 자비와 존경심을 보였으며,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미워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믿는 우리는 “살인치 말지니라”라는 오랜 요구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참된 인간성과 진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동과 사형에서 뿐만 아니

라 모든 걸음걸이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난과 고통과 수치를 보고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살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회주의자에게는 모든 소유물이 도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와 무자비함과 무관심과 경멸 등의 그 어떤 것이라도, 믿는 자의 눈에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것만 아니라 미래 것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의심으로도 한 젊은이의 미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느 곳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든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하면서 그것의 많은 부분을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내딛을 때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임무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 임무는 모든 인간을 조금씩 돕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특정한 종류의 살인을 폐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훌륭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동물적 존재로부터 참 인간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

9장

산 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가진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특성은 그 나라 백성 위에 새겨지며, 그 백성은 이 특성을 삶에서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경험 위에 세워지는 이 특성은 새로운 윤리와 더 나은 의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옛 윤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의로서 율법주의의 산물이며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강요로 인한 결과입니다. ‘더 나은 의’ 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면의 자유가 그 본질입니다.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더 나은 의는 자신에게 외적인 명령을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은 맘몬주의적인 노예화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귄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료들은 그 특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너무도 뚜렷하게 달라서 오직 하늘의 아버지와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넘쳐흐르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날 때 그의 자녀가 되며 그의 성품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비 속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일치로 인도합니다.

산상수훈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해방이요 새 사람을 입는 은혜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경험입니다(엡 4:22, 24). 예수님은 우리를 옛 본성의 죽음에서 새로운 인격의 따뜻하면서 능력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새 사람이시며 두 번째 아담이시고 또한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고전 15:45). 그와의 사귀를 통해 우리는 사망의 찍어짐을 이기는 소금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 생명을 주는 따뜻함과 분명한 비전을 퍼뜨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과 사랑의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가져야 하는 관계를 강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로 인도하시는 좁은 통로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태도인 허영심과 교만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 우리는 우리

의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의 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갈망과 목마름이며 하나님의 의를 향한 끝없는 굶주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경험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철저히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진정한 단순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더 나은 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도덕주의자들의 의는 압력과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의’가 맺는 행위의 열매를 가능케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열정과 깊은 내면의 자극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더 나은 정의와 옛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는 이 ‘더 나은 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의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때 생겨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새로운 정의도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한 표현을 추구하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도덕주의적인 태도와 세상에서의 힘과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이제 원수를 직면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대체됩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전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중대한 힘으

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해롭고 타락한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충실함과 순결함을 증명하는 것이자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한없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나라의 영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권리 위에 세워진 옛 의가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허술한 기초 위에 반드시 무너질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mammon이나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mammon(mammon)이나’ 라는 극심하고도 중대한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과 외적인 것을 좇는 삶이 더 숭고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mammon은 재물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 mamona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재물에서 사단의 권세를 보신 것입니다.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편하고 쾌락적인 삶에 내어 맡기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세력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mammon숭배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은밀한 물질 숭배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삶의 두 가지 목표이자 사람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두 주인입니다. 이 미 초대 교회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맘몬’을 마귀 바알세불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맘몬을 섬기는 일을 결합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맘몬을 멸시하면서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분께 충실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은 육체적인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들의 힘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든 그저 손에 넣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에게 나눠주길 원하는 삶의 부유함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태도는 맘몬을 섬기는 태도로 오직 권리만 알고 책임은 모릅니다. 그 태도의 최고 목표는 돈벌이와 이득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재산을 굳건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종종 그밖의 모든 것은 억압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능적인 쾌락과 안락한 생활과 물질적인 만족을 좇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맘몬을 섬기는 거짓되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

한 길은 우리 자아를 극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불살라 소멸시켜라. 당신 자신이 우선 재로 변하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되겠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이 경험을 하지 않는 한
당신은 여기
어두운 대지 위에
우울한 손님입니다.

그렇다면 맘몬의 노예로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와 표현처럼, 어떻게 ‘새롭게 될(rebecome)’ 수 있으며, 피테의 말에서처럼 ‘자아를 벗어버리는(de-self oneself)’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거처를 지키면 그 세간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정복하면 그가 의존하던 무기를 빼앗고 물건을 노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맘몬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수를 정복하셔서 무장해제 시키시고 결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세워놓은 맘몬의 구조를 이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맘몬을 섬기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며 타

락한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고후 5:14, 15).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롬 6:8).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골 3:2, 3)”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맘몬과의 싸움

11장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교제를 의미한다면, 또 모든 생명체가 서로 도우며 생명을 촉진시키고 일치와 자유의 미래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세상에 죽음과 파괴와 살인이 이처럼 만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타인과의 친교로 이끄는 사랑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랑의 친교를 파괴시키는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의 힘은 인류라는 유기체를 병들고 타락시키며 죽입니다. 또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병적인 자기중심성이며 탐욕의 힘입니다. 이 힘은 생명을 단결시키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공격하며 모든 생명체의 일치를 파괴합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과 나란히 살인하고 노예로 만드는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두 세력 사이의 긴장은 오늘날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거나 어떤 대의를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맘몬 사이의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것은 모두 한편이고 그 반대편에는 종교적이 아닌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과 무종교적인 것 모두를 공정하게 관통하는 분리선을 긋는 것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같은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한 것에 의해 유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의 종교가 실상은 메시아의 하나님이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실제로 거짓 신의 종교가 아닌지, 지옥에서 나와 인간의 결속을 분열시키는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도권 교회가 재물의 편에 서서 재물을 변호하고 맘몬을 정당화하고 군함에 세례명을 붙이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축복해오지 않았던가요? 이 교회가 입으로는 고백하는 그분을 실제로는 부인하지 않았던가요? 기독교 국가가 이제껏 존재했던 가장 경건하지 못한 제도가 아닐까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정반대되는 특권과 재산을 비호하는 곳이 국가와 조직화된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숭배가 사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큰 재산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악

은 동료 인간을 무참히 죽이기까지 하는 탐욕의 절정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던가요? 전쟁은 오직 맘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맘몬의 영에서만 매춘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이 악마가 감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시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종교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세상에 전한 소식은 ‘모든 가치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즉 다가올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질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이 세상 신에 눈이 가려진 외인에게는 감춰진 비밀에 싸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정의와 일치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신은 대중매체에 의해 의인화된 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 탐욕과 살인적인 소유욕의 신이 세상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 즉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영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고전 2:12).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맘몬의 영이 가진 본질을 극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부

자들의 종교가 실상은 죽음의 영을 숭배하는 것임을 폭로 하셨습니다. 이 맘몬의 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상거래 속에 부정이 판을 치게 됩니다. 또 소유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 살인과 거짓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부정한 영들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요 8:44). 맘몬의 본성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만이 맘몬의 유일한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세상에는 우리의 풍요로움 때문에 마치 무슨 해로운 벌레마냥 짓밟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맘몬의 세력이 확장되면 그만큼 무수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맘몬과 거대 기업은 거짓말하는 영의 힘을 빌려 세상을 지배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속임과 사기가 없다면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대중을 기만하고 속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설명할 수 없으며 여기서 상세히 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경제적인 문제를 시험해보고 맘몬의 지배로 인한 살인적인 결과를 조사해보면서 깨달아 가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누구 한 명의 양심적인 목소리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매우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불의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에 대항하는 총체적인 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반란으로부터 먼 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집단과 심지어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조차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존재해야 한다” 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과 생계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자의 존재를 기뻐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파괴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손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이 실적이라는 방법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정의를 사취당하고도 전혀 그것을 눈치 못 챌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들 역시 이 mammon 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mammon은 인간에 대한 돈의 지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돈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재정적 안전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mammon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진짜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중심 축에서 mammon의 노예적인 지배를 제거할 수 있는 지레를 사용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우리 자신의 mammon주의에 의해서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 아니면 돈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맘몬입니다. 영은 가장 깊은 친교이며, 살아 있는 모든 것의 가장 깊숙한 내면의 사귄입니다. 그 누구도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체로 가족으로 사회 계층으로 노동조합으로 나라와 정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연합체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됨을 통해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영이 이어지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사이의 가장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를 유기적인 공동체와 건설적인 친교로 이끕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로부터 마음과 영과 하나님을 강탈하는 악마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 돈만이 유일한 가치로 남을 때까지 인간관계를 물질주의적인 교류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사단은 인간 삶의 최고 목표를 파괴하는 일에 재물과 돈을 사용합니다. 결국 물물교환의 수단이어야 할 돈이 그 자체로 소유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들이 오직 돈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의 관계들을 포기하고 돈 거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내버려둡니다. 결국 돈은 모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돈과 사랑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돈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성적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 사랑과 존경의 반대인 것

처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명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이 사랑과 진리에 반대인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맘몬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이처럼 사람을 노예로 삼고 살인하는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맘몬이 다스리는 곳에는 소유욕이 공동체를 향한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서로 죽이면서 살아남으려는 생존경쟁이 사랑하도록 촉구하는 힘과 상호부조의 정신보다 더 강합니다. 파괴적인 힘이 건설적인 힘보다 더 강하고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강합니다. 재산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며, 자기주장이 친교를 가져오는 연대 의식보다 강합니다. 맘몬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면서 친교의 삶을 살도록 자극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맘몬의 영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환경에 지배 받게 만듭니다. 진실로 이 맘몬의 영은 거짓과 음란과 살인의 영이며 나약함과 죽음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영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압도하시고 고치시는 방법으로 이 영을 정복하셨습니다. 생명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사망의 원수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은 사망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친교를 가져옵니다. 그

리스도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 12:31)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패배한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질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눅 16:9)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마 22:21)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음의 말씀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마 6:19).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눅 6:24, 25). 또 너를 숭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 까지도 가지게 하라(마 5:40)”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mammon을 포기할 준비가 된 것이며 mammon에게 전쟁을 선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눈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면 이 눈은 더 이상 mammon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재산을 모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우리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자유와 일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미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물과 재물을 나누어주면서 사랑을 얻고 영원

히 옆에 있을 친구를 사귈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 찾아 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보시고 첫 눈에 사랑하셨습니다(막 10:21). 예수님께서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 사랑을 지금 당장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막 10:21).

예수님께서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만난 신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와 소를 파는 사람들, 돈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맘몬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엮으시고 돈을 경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집이 맘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마 21:13). 바리새인이 보낸 정탐꾼 하나가 와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오랜 여행에 쓸 공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지자 유다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배신자가 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바

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살인의 결말인 죽음을 스스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질서의 메시아이며 왕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관원들과 서기관들에게 “네가 구원자 메시아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냐” 라는 심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그렇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 26:64). 이 혁명적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맘몬의 지시로 실행된 그 공격은 성령으로 난 공동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종교와 반종교에서 똑같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맘몬과 사망의 뜻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의 지도자가 겪은 바로 그 사형 집행과 죽음 자체를 통해서 생명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짓밟히고 유린당한 일부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여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랑과 질서와 자유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노동과 소유의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역시 생명을 파괴하는 사망의 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각 개인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가 흐르는 사이에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맘몬에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가난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가난을 선택할 때 그들은 사실상 가장 풍요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과 믿음의 친교를 나누며 함께 다가올 장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맘몬의 영도 역시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맘몬을 상대로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직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만나게 되는 중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살인에 반대하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정욕을 일으키고 도적질하도록 하고 욕심 부리게 하는 모든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도의 굴혈을 없애 버리시고 소유물과 재산을 탐내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정복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난 인류를 끊임없이 저지하셨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단순한 형태의 공산사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해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인 투쟁은 늘 중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맘몬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혁명가들과 한 편입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마 12:30).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맘몬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법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상에 근거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공동 작업과 친교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유 재산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돌밭에서 싹을 내어 유기적으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풀이 싹을 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 새싹들 위에 햇빛과 비가 내리고 살아 숨쉬는 푸른 들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주 후에 당신은 온 들판 가득 무성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잡초와 돌멩이들에게도 불구하고 어린 작물들이 잘 헤쳐 나오면서 자랍니다. 풀잎 하나하나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온 들판은 이룰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밀과 가리지는 추수 때까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은 뽑히고 오히려 가라지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 13:29,30). 오직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기 위해 피의 혁명을 통해 mammon의 추종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을 차례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혁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의 아버지와 동맹을 맺고 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mammon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기만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mammon과 동일한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독으로 독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에서 생명이 탄생하며, 오직 사랑에서 사랑이 탄생합니다. 오직 공동체를 향한 소망에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공동체는 한 가지 목표에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미래에 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수의 무리가 만날 때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미래의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모양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승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mammon에서 해방된 사랑의 왕국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질서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십시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썩었고, 여러분의 옷가지는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약 5:1-7 표준새번역)

맘몬과 살아 계신 하나님

12장

페르시아의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사는 원리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진리, 순결 그리고 땅 위의 노동입니다. 하지만 조로아스터는 이 진리와 순결과 노동 그리고 사랑의 친교에 대항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서로 대항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선지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 첫 번째 예언자가 조로아스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두 종류의 대항하는 힘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영혼과 물질처럼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뗄 수는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을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모호함과 명쾌함, 밤과 낮의 대립처럼 서로 도전하는 두 개의 극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을 밝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는 모든 저녁, 어둠이 짙어지면서 별이 빛나는 깊고 검푸른 하늘을 정복하며 달이 떠오르는 모든 밤, 셋별이 태양을 예고하며 밤에서 새 날이 태동하는 모든 아침, 우리

는 빛의 탄생과 죽음의 상징을 목격합니다. 이지러졌다 다시 밝아지며 다시 가득차는 달은 이 순환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둠을 이긴 빛과, 악을 이긴 선의 놀라운 승리라는 하나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조로아스터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낳고 성령은 진리를 낳고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는 당신에게 믿음을 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마 28:20). 그리고 이기심과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와 무엇보다도 화려한 거짓말에서 난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행위는 세상 모든 곳에 알려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치켜세웁니다. 쾌락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는 것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본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르십니까? 이것은 참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생을 도적

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이 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합니다. 악은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악이 종말을 고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한 것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판단치 못할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자라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무엇이 의로운지 아십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선함을 바라는 내 마음은 점차적으로 질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거짓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훼손시킵니다. 나를 지탱하는 나의 세계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는 영리한 자들을 그저 교활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가르치지만 얻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원하는 자를 죽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억

울게 합니다(말 3:5).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처럼 살도록 만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나처럼 슬피 우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력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진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춥니다. 그들 때문에 동일한 분노가 모든 선지자들 안에 불붙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광인들의 희생물이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늘과 땅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능력을 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롬 8:31)? 주여, 내가 분투할 때 힘을 주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단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울부짖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의 혼란스러움을 보십시오. 당신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편

단심 당신에게 매달려 당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께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을 떠난 반역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은밀하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오 주여,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묻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리고 앞날은 온통 어떻게 펼쳐질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펼쳐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선인과 악인의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당신께 묻습니다. 악인의 악을 도우시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육축과 땅을 약탈하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당신께 묻습니다. 도대체 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리고 교활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외치고 싶습니다. 거짓이 난무할 때 진리가 참으로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역경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당신을 이해합니다. 오 반역적인 생각이여,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반역적인 생각이 가정과 공동체에 그리고 국가와 세상에 내적인 평화를 가져옵니까? 외적인 것을 간절히 구하면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음을 입습니까? 근원되는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곳을 아는 자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입니다. 오직 이 소생하는 기쁨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일단 섬광이 튀기면 불꽃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두 방망이는 서로 마찰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불붙은 불은 선하고 선할 뿐입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연기 아니면 불꽃이 되십시오. 연기에 상함을 입고 질식하십시오. 그리고 불꽃 속에서 살아나십시오.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택하는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 악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선

택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항상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리라는 보장된 평화를 항상 주시며 영적인 그의 평화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고대의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에 굉장한 싸움이 표현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떤 외적인 구별을 두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상주의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싸움의 한 편이고,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물질주의자들이 다른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분류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밑바닥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싸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상주의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질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한 편이고 악한 자가 다른 한 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선하고 물질주의적인 삶은 악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참으로 그 믿음을 두는

곳은 어디이며, 종교적인 삶이 신을 만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거짓 신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아닌 세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신이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항하는 세상 종교의 신이며,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영원에 적대적인 이 시대의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의 본질은 마음이 없는 노동, 사랑이 빠진 사업, 영이 없는 조직, 기쁨을 대체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며, 경쟁자를 짓밟고 사람들에게 사취한 사유 재산을 우상화합니다. 이 신은 선의 하나님이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며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정의의 질서를 가져오는 유일자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시대의 신이며 지옥의 신이며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어두움의 사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막강한 마귀를 단순히 미신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신은 그것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미신적 신앙은 숫자와 낱자의 힘에 의지하면서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 영향을 끼치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런 삶의 영역들 너머로 뻗어나

갑니다. 적군은 많이 죽이되 자신은 죽음을 면하길 바라며 부적을 목에 두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또 자신들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주문을 써서 악한 영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은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가장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저술 속에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을 읽습니다(고후 4:3, 4). 세상 신은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더 이상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없게 만들고, 미래와 해방의 소식 그리고 인류의 일치와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식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래 나라가 소유한 순결과 진리,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영은 모든 악덕과 정욕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사단의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사망과 그 무기와 벗하고 싶어하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악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영은 마비시키고 도취시키며, 사람들에게 권력에 대한 환상을 주지만 실상은 무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몸이 꼬부라지고 완전히 허약해진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묶어놓은 이 여자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3:16).

이 어둠의 영은 나약함과 분열, 사망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영이 가져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그것의 치

명적인 상황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초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엡 2:1, 2)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마력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이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영에 너무나 꼭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위험한 본질을 분별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영의 성질을 명백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이 시대의 영의 본질을 분별하도록 인도해주는 맑고 순결한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영은 유행과 풍조의 영으로 순간적인 유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 시대 전체 풍조의 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서 종말을 고할 때에야 이 영은 폭로되고 정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그 날을 밝히는 찬란한 별이 이미 떠올랐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다스리실 예수님은 이 영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는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그어놓은 원수와의 뚜렷한 경계선을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싸움과 또 확실한 승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이기는 선의 승리

에 대한 강렬한 낙관론을 다양한 색채로 그려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영을 폭로하시면서 다른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맘몬 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 부정한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영의 본질은 물질주의이고 직업은 살인이며 성질은 거짓말이며 생김새는 음란입니다. 도덕주의자에게는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서로 무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그것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맘몬주의는 빼앗고 소유하고 즐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맘몬주의는 소유와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맘몬주의는 다른 사람의 삶이 한 인간의 소유와 즐거움을 방해한다고 넌지시 말하거나 욕망에 도취되도록 만듭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타락시키면서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맘몬을 지배하는 탐욕스러운 의지는 그들을 이중적인 살인자로 만듭니다. 거짓과 비겁과 음란은 모두 동일하게 탐욕스러운 의지의 결과들입니다. 누구든지 탐욕스럽고 살인적인 맘몬의 영과 억제되지 않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맘몬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

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나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가 정체를 드러낸다면 그 누구도 관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리는 어린 양의 흰 양털을 걸쳐야만 합니다. 교활한 하이에나는 명예로운 시민의 가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늑은 여우는 순진한 척해야만 합니다. 사업상의 사기와 속임수는 가능하면 사람들을 거슬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국가간 분쟁이나 사회 계층간 갈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과 이기심을 방어하는 일에 진리와 순수함의 무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직한 상황은 지구 공동체를 향한 신뢰와 애타심과 헌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들이 적어도 모양으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들은 도덕적으로는 꽤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매우 무너지기 쉽고, 종종 권력욕이나 쾌락 추구하고 결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고객들을 이용하는 사업가들의 자칭 ‘정직한’ 모습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또한 내전을 포함해 모든 전쟁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뒷받침하는 ‘고상한’ 윤리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고의로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무자비한 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척하는 착취와 고용주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억압과 굶주림을 설명해줍니다.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발생하는 음란의 속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이성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속이고 농간하면서 영혼을 죽입니다. 끝없는 욕구충족과 희롱을 위해 참된 사랑을 꾸며내는 그런 ‘사랑’에서만 그렇게 많은 거짓이 행해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맘몬, 거짓, 살인, 음란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명칭들이 동일한 하나의 영, 즉 동일한 하나의 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이 신이 세상에서 휘두르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 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 6:19)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자”

이 속박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해방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고 싫증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사람들 사이의 사귀를 소멸시키는 대신에 불의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눅 6:24, 25)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

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누어주면서 참된 사권을 얻으려면 그리고 불의에서 돌아서면서 친교를 발견하려면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눅 16:9)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소유를 모두 나누어주면서 마음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친교와 공동체의 길을 가십시오. 영혼을 가로질러 물질적인 것에도 스며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를 구하십시오. 맘몬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맘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선 돈을 떠올립니다. 사실 돈은 맘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맘몬이란 재물에 가치를 두면서 인간관계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어머니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과 누나들은 모두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보살핍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니게 되고 같은 학년 친구들에 둘러싸여 계속 자랍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장성한 젊은이는 일을 시작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함께 일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익힙니다.

사랑이 젊은이에게 찾아옵니다. 기쁨과 충실함 가운데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소유를 함께합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가 엄청난 실재로서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합니다.

각 개인의 삶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계층과 국가 차

원에서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세대도, 한 세기도, 심지어 한 순간의 시간조차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가집니다. 이 관계들이 더욱 활발할수록 삶은 더욱 충만하고 부유해집니다.

물론 이 관계는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툼도 관계입니다. 때로 정직한 적이 더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과 피상적인 관계보다 정직한 불일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청난 요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친구들을 제외하면 바로 원수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서 특히 내면의 감정에서 가장 빈번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친구 못지않게 내 마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장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때에만 원수를 향한 나의 관계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쉴러는 노래합니다.

“내가 미워할 때, 나는 내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습

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 나는 내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 더욱 부유해집니다”

삶은 관계이며, 상호작용이며, 주고받는 것이며, 오고가는 것이며, 날마다 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과 의지의 친교, 지식과 창조적인 일의 친교, 신앙과 소망의 친교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생명의 친교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돈이 끼여듭니다. 오늘날 세계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돈은 친교의 숨통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생명력 있는 상호교환과 서로 돕는 봉사가 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한 개의 동전이 되어버리고 한 장의 지폐로 변해 버립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삼켜버리는 수단이 될 때 돈은 악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격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교가 되지 못하는 금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지닌 악마적 성질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고팝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상품으로 볼 뿐입니다. 노동 또한 소비하고 돈을 치르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과 이 물품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품을 생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모두 돈 속에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과 봉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물질주의적인 관계로 변하면서 친교의 영이 사라집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관계에서,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도 없이 봉사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일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식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비롯합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이 행해지는 곳마다 그리고 행해질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희생물이 되고 맘몬의 희생물이 됩니다. 비인격적이고 영이 빠진 모든 거래와 노동관계는 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장에는 돈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규정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주주들에게는 이런 규정된 관계조차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주, 주식회사, 이사회, 경영진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둘 간의 상호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책임을 이사회에 미루고, 이사회는 투자자들에게 미룹니다. 노동자 집단은 그들의 고용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세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접근하기조차 힘든 주식회사와 능률향상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돈과 손익계산과 급여수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현대 산업과 기업에서 영혼이 짓밟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는 단지 급여번호와 소득수치로 여겨질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일과 친교를 일으키는 일은 생산 과정에서 제거되어왔습니다. 이것이 기계와 기계가 만들어내는 체계의 특징입니다. 영혼은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혼은 출퇴근시간 기록기에 넘겨집니다. 그 대신에 노동자는 출퇴근시간 기록기에서 번호를 받고 기계가 작업 일정표를 강요하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돈과 이익이 노동현장에서 친교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영혼을 죽이는 경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원래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받은 mammon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돈은 탐욕을 통해서 작용하며 무엇이든지 금전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고 돈을 거부한 인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돈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돈의 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돈이나 돈의

제거냐의 문제가 참되고 본질적인 문제의 유일한 표징이 됩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정복되기는 하지만, 맘몬이 그저 돈이나 사유재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돈 없이 산다거나 공동 재산을 가진다고 해서 사랑이 지배할, 다가올 나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맘몬은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도 존재합니다. 가진 것이 없이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음식과 의복과 집의 필요성은 여전히 그들을 몰아가는 힘입니다. 생존경쟁에서,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 삶은 물질적이며, 자기보호 본능과 번식의 본능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로 맘몬주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옷과 잠자리와 성(sex)의 필요성 위에 상호 관계를 세우는 것은 영의 물질화 위에 관계를 기초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창조력은 초대 기독교와 구약 성경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이시며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명쾌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가올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거짓과 부정을 이겨내시는 진리와 순결의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맘몬을 이기는 정의와 사랑의 창조적인 영의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맘몬주의는 생명의 친교를 멸절시켜 버립니다. 맘몬주의는 사망이며 생명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맘몬의 영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가 순전히 내세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모든 것을 어느 날 천국에서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관에 들어가 드러눕는 수도승처럼 오직 죽음의 시간만을 고대하는 저 세상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인간의 해방이며, 죽음이 우리의 구원책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부끄러운 생존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입맞춤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저주 받은 육신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순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낙원으로 옮겨놓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입맞춤은 해방자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자의 독을 품은 숨결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생명과 상호 헌신의 살아있는 친교 밖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인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망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죽음은 정복해야 할 최후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큰 구분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 사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과 영 사이의 구분이 아니며 유형과 무형 사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 구

분은 모든 영과 육체에 적용되며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적용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하나님과 마귀는 전력을 다 해서 활동합니다. 어느 육체에서나 하나님과 마귀는 활동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활동해 왔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영이 어떻게 해야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 안에서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매 순간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불의의 세상 영인 맘몬을 어떻게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earth)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대해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저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 세상을 수상쩍게 바라보는 유혹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고유의 정신 속에서 세상과 흙과 땅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earth)을 소유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선지자들이 선포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영과 땅’의 기적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순결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창조적인 통치권은 이 세상에 만발해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호 관계 안에서 꽃피는 정의와 진리와 순결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기쁨이 이 지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의 기쁨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일치를 위해서 정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라. mammon의 영이 자신의 세상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것들은 때에 맞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나게 될 때 너희는 mammon과 살인과 거짓과 부정의 마귀를 밟아 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이미 너희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며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먼 곳에서 일어날 미래의 유토피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 다가올 나라에 대한 확실성은 현존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올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며 그의 영은 모든 사람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여기서 불의의 mammon과 관계를 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죽어 없어지도록 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일과 살인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고 부정한 것을 열망하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이제는 욕망 때문에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들이나 정원의 땅에서 하는 단순한 노동과 그 외 육체적인 혹은 지적인 노동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친교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와 똑같은 성스러운 섬광이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습니다. 시인 쉴러(Schiller)는 그의 <기쁨의 서정시(Ode to Joy)>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껴안을 형제 사랑을 환희에 찬 기쁨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로부터 즉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장래 나라의 영이 주어집니다. 이 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증만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생명과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친교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상호 신뢰의 관계와 내면의 친교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오직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과 정의가 삽니다. 탐욕의 음침한 영과 의롭지 못한 맘몬의 영과 이 영의 치명적인 미움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세상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은 고귀한 희망이며 이 희망은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은 사회주의자들과 무소속 의원들,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서 그 지도자들이 지친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합을 더욱 단결시킬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들과 전 의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결속을 요구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다면, 그들에게 단결된 행동을 위해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완전한 패배에도 불고하고 힘을 내라고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필수품의 공정한 분배와 정의롭고 평화로운 노동의 친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살아 있을 때만, 노동자들은 단결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 이 믿음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비록 서로간의 차이점들이 아무리 뚜렷하게 부각되더라도, 여러 정치적 당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확신, 친교를 파괴하고 믿음을 좌절시키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그리

고 그때 사랑의 기쁨과 정의의 친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전히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의 원천이시며 창조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 살아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맘몬과 그것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땅과 노동과 물품의 분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취주시며 비를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가지게끔 하십시오.

우리 이제 일치를 이룹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면에서 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룹시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되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살아있는 친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입니다. 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단

13장

중교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대 교회 사도들은 이 연관성을 분별해 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채지 못하는 지옥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사도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 신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참 소식인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직감적인 이해를 흐리게 합니다. 현대 극예술에서 이 영은 육욕의 마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반(反)기독교적입니다. 우리가 신성하다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반(反)신성적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의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을 거짓의 아버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맘

몬이며 음란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이 진실을 감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귀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어디든지 거짓이 지배하는 곳에는 종교적인 기만이 널리 행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기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자녀들을 통제하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짓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래(below)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거짓으로 이것은 인간이 가진 살인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거짓은 지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당시의 대중매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혁명 투쟁과 그 시절의 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나 거짓의 영과 살인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인할 자를 찾기 위해서 배회하고 있는 모든 영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벧전 5:8). 상대방의 좋은 본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상대방의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떠벌리는 영은 모두 아래에서 나옵니다.

성적 부도덕과 불륜은 거짓과 살인과 범죄의 영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갖 전쟁과 혁명이 증명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의 비참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에 놓여서 거의 광인처럼 되어버린 한 남자장

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장교는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과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뱃속의 아이를 낙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이런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라도 남자를 배신하고 파멸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살인한 일로 양심에 큰 가책을 느껴 그 남자는 자신의 부정한 삶이 안겨주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질질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파멸될 때까지 이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음란, 살인 이 세 가지 끔찍한 지옥의 힘들은 우리 시대에 사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보통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네 번째 힘인 mammon의 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mammon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에 사로잡히면 사랑을 돈으로 사고 몸을 비천하게 내던지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mammon의 영 때문에 거짓은 극단으로 치달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사업과 사회 계층간의 관계와 국가간의 대화에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금전적인 상황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mammon은 다른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항상 가족과 집단과 종족과 국가 안에서 살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큰 친교의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관계들이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관계들로서 공동체의 유기적인 건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재산과 돈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악마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돈은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물질화합니다. 돈은 물물교환의 수단이었지만 이제 그 자체가 소유물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두려워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상호교류는 필요하기에 돈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맘몬의 영은 사람들을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물건으로 지배하며 하나님 대신 상황과 조건을 의지합니다. 맘몬의 영은 이기주의에 갇힌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이 이기주의는 자기애의 산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정반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진지한 친교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파괴하고 살인하는 성향을 극복하며 사랑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음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맘몬의 사람이 되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어떤 이득을 얻으며 금전적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모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사랑의 충동이 타락합니다. 여기에는 남녀간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결단은 각 사람마다 취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 사이의 결단이며 사랑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창조주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놓인 타락한 피조물 사이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결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에게서 선함과 순수함에 대한 큰 열망을 보시고 예수님은 첫눈에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훌륭한 전통과 확실한 교훈을 가졌던 그 청년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으며 결코 간음한 적이 없으며 결코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며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주장의 거짓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다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26).”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청년을 더 깊이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재산과 넉넉하고 안락한 외적 생활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네가 온전하게 되는지 말해주겠다. 만약에 네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 같은 호화롭고 안락한 것을 네 이웃도 가지기를 바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에 가득 차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에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같

이 대단히 귀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맘몬의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맘몬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인 위에서 난 성령보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지옥에서 난 영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중요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재산과 사업을 처분하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회심한다는 것은 맘몬과 돈으로부터 철저한 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재산을 포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요구되는 만큼의 수준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돈과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땅과 소유물과 사업과 예금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이건 내일이건 언제라도 내어줄 태도로 산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철두철미 돈과 그 영향을 거부하고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입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맘몬의 영이 더 이상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우리에게 늘 귀감이

됩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던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예수님께 감화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 사랑과 재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 사이에서 동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속을 거닐다가 들머리 외딴 교회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즉시 하나님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재산과 화려한 옷과 말들과 마차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가장 가난한 서민의 옷차림으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슷한 본보기로, 러시아 사람 바실리 오시포비크 라호프(Vassili Ossipovich Rachoff, 1863—1905?)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긴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여인을 보면 돌보고, 더러운 곳은 청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는 곳마다 사랑과 존경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저야 할 십자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거짓에 항거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의 증거는 오늘날에도 여

전히 영향을 끼칩니다. 비록 세상은 유치한 기쁨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어린다운 단순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mammon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본보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공장과 큰 돈을 가졌지만 얼마나 검소했는지 옷이 해질 때까지 몇 년이고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단번에 모두 나눠주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한 푼 까지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본보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mammon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만이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형태의 mammon주의를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mammon주의는 우리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에만 의존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mammon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외적인 것에 의존하며 그것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집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염려의 어두운 그림자가 마법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태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에 비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과 고민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mammon

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사회계층 간의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듭니다. 또 부자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승리감이 솟아나게 하고, 미움과 질투와 살인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염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동일하게 염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부자가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과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에게 팔린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모든 외적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과 숲에 나는 새를 보살피시듯이 당신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 중의 극치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큰 영광으로 임히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염려와 두려움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거나 앞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 얼마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정부가 우연히 엿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 집으로 편지를 써서 아놀드 가족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놀드 박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신문에 파산 기사가 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는 아무것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을 보살피시듯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가져오는 자유에 담대하게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입니다.

거짓과 살인으로 맘몬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맘몬주의의 영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운동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악마적인 맘몬주의에 항거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운동들에서조차 맘몬의 영이 거짓과 온갖 종류의 부정을 통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맘몬의 영과 이에 종속된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과연 거짓의 영보다 더 센 영이 있느냐? 부정과 미움과 맘몬의 영보다 더 강한 영이 있느냐?’ 이것이 당신의 현재와 영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와 영원의 지옥을 결정지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맘몬보다 더 강한 성령이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음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며 마귀의 세력을 이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 위에 평화와 기쁨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고후 3:17).

자기 포기를 통한 저항

14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나타난 완전한 평화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강력한 세상 경제의 지배력과 모든 국가 정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평화의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적의 칼 앞에서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폭력을 십자가의 무저항으로 견디셨습니다. 칼 앞에서는 십자가는 사랑의 극단성을 나타냅니다.

산상수훈의 평화는 죄의 뿌리를 공격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속옷과 겹옷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고 한 시간 일 해줄 것을 두 시간 일 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의지는 모든 힘을 전적으로 완전한 결속을 이루는 데 쏟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현 상태(status quo)와의 이런 단절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주장이나 권리를 내세우는 것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교

회가 법적인 행동이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간의 화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화 가운데 경건을 흉내내면서 사느니 차라리 종교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결코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을 선의 길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대 맞고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두 대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한계를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별거나 이혼의 위협도 싸워 이겨내며 변함없고 충실하게 가정을 지킵니다. 사랑은 은밀한 기도를 용서로 가득 차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며 원수 — 특히 원수를 — 까지도 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적대적인 행위나 싸움이나 전쟁에 결코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적대적인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외적인 환경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사랑을 보이면서 평화를 실천하며 오직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곳에는 전쟁과 무기와 적개심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마침내 선지자들이 예언한 정의가 구체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도덕주의자들과 신학자들의 정의를 합친 것보다도,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평화

주의자들의 정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살아있는 나무의 수액과 같은 미래의 평화와 소금의 힘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횃불과 같으며 이 동네의 탑은 자유와 일치와 자기 포기를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바라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게서도 일어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사랑의 평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받지 않으며 아무런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멸시받지 않으며 침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이며 진리로서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모습은 그 행위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단호한 공동체적인 결심이 사방에서 아주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여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완전한 친교로의 부름을 받아들이 수 없거나 받아들이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돌은 불가피하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력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생명력 있는 친교의 삶은 이 세상의 행위와 침예하게 대조됩니다. 이러한 삶은 특히, 이념적인 논리와 정당성을 내세워 사람들을 폭력 행위로 동원하는 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교의 삶에서 적대 행위는 아무리 정당하게 보더라도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이나 법적인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선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는 정당성을 가질지 모르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제 당하는 이들을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폭력적인 반란에 관계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본질과 현존은 좌익이건 우익이건 정부의 무력사용이 이 시대에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 그의 말씀과 행위 — 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을 품으시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미래에 그의 나라에 임하실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랑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장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에게 대해 하신 말씀도 시대에 상관없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나무와 그 수액, 불꽃과 빛의 관계처럼 하나이며 따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따로 떼어 내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생활 안에서 추구되는 사랑의 의지를 일치의 의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마찬가지로 재산과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비폭력과 용서 그리고 원수사랑 안에서도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이웃에게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가도록 재촉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과 복수하는 일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겁내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서 악한 것과 해로운 것을 견딥니다. 비폭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누구든지 명백한 양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는 모든 법적 행동과 적대적인 행동을 멀리합니다. 초대 교회 장로들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중재자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모든 이익을 버리며 모든 특권을 단념하며 결코 권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누구를 판단하는 배심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누구의 자유도 빼앗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원수가 없으며 전쟁을 하거나 누구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건설적이며 가장 실제적인 정의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의 요

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리낄 것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아가페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은 명쾌하지 못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의 사랑은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기쁨에 도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기쁨은 의지력과 명백한 이해와 마음의 힘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의 물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세상에 넘쳐흘러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며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그분의 영광이며 나눠주는 기쁨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바라는 사랑,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만이 정의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이 온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쪽 생명을 위한 반쪽 예수는 망상이며 거짓입니다.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떤 믿음의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내어 사용하는 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나눌 수 없으며 해부할 수 없습니다. 일관된 태도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게 정당성을 입증할지라도 그들의 미지근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2:30).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것저것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계명들을 만나면 그냥 지워버리거나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발뺌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운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단성 있는 태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어정쩡한 친구들보다 원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자신의 말을 왜곡하는 자를 더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미온적인 사람과 색깔이 분명치 않은 사람과 모습이 분명치 않은 사람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또 핵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섞어버리며 아무런 헌신의 약속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종교적인 잡담을 몹시 싫어

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침투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속임수이며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급하고 덧없는 인상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되 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영접하는 자만이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은유로 자신을 감추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전부 다 가지기 원하지 않는 자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진실을 깊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세상의 고난을 품고 정의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미래를 하나님의 마음에 바치셨습니다. 이 미래와 하나님 마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평화를 위해 온 의지를 다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새 시대의 여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의 동네에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졌던 친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령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곳은 완전함의 동네이며 성전이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친교의 삶이 바로 크신 왕이 거하시는 평화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안식일이 주는 일곱 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수고는 영원히 멈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조용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동네는 새 피조물의 찬란함을 열어 보입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이 권능으로 오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 공동체에서 평화의 동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하는 다가올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빛의 동네는 빛을 지닌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어 어느 한 곳도 어둠 아래 남겨 두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삶은 여행하면서 선교하는 삶과 동일합니다. 높이 들린 이 빛은 구석구석 어디라도 미칩니다.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주는 해방은 어두운 죄악과 그 죄악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새로운 세상의 빛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욱 적나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새 생명은 더욱 더 힘차게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와 인류의 고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가오는 나라의 평화는 용서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분열됐던 모든 세력은 새로운 순수함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시간이 지나가고 찾아오는 평화로움을 주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전쟁과 평화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와 똑같이 마음의 평화는 이전에 지은 죄와 불화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조를 이룰 때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신의 산산조각 난 무력함과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긴장을 통해서만 생명 있는 삶은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새 교회의 새 화덕입니다. 이 새 화덕 주위에 그들의 공동 거주 장소가 발생합니다. 빛을 발하는 성령의 불 주위에 하나님의 유형(有形)의 집으로서 그들의 영적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온 땅에 빛을 비추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예배 처소는 성령 안에서 타오르며 진리 가운데 빛납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영광을 받은 순교자들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보좌 둘레에 모인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 가져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자들과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자들은 성령의 불 안에서 살아있는 일치를 이룹니다. 하

님의 집에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전원일치는 위에 있는 교회의 일치와 같습니다. 죽을 운명의 덧없는 인생이 접근할 수 없는 온전한 빛 가운데서만이 일치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타오르는 사랑 안에서 일치의 영은 위에 있는 동네로부터 힘을 연습니다. 믿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치와 사랑은 소유물과 땅과 노동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일하도록 믿는 자들을 인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열정을 지닌 선교를 하면서 이 빛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빛의 나라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소식이 됩니다.

성령은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의 비밀입니다. 하늘에 있는 동네와 일치를 가져오는 것은 성령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영원한 산의 꼭대기에서 부는 순결한 공기로만 삽니다. 이들의 시민권과 정치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동네는 모든 것을 그곳으로부터 기대하며 그 곳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생명의 영은 승리합니다

15장

중교와 전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압도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도, 그 사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을 돕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성실하게 힘써 노력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택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은 개인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하게 되거나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입니다. 산상수훈 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비밀을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산상수

훈은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나무의 수액과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소금, 이것들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불붙일 수 없는 빛 즉, 오직 하나님의 존재라는 샘에서만 우리에게 흘러오는 진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많은 추종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의 십계명을 대신하는 새로운 율법이나 계명,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나무와 빛과 새로운 소금과 새로운 실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가오는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새로운 빛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복음 전체는 이 기도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영적 물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용서의 확신, 마귀의 권세에서 온 세상이 자유를 얻는 것, 이 세상에 엄습할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시각은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부

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왔습니다. 당신 내면의 눈은 온갖 다른 관점에서 보아 왔습니다. 당신은 다양한 욕망과 관심 때문에 매 순간 분주한 채 단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그것에 진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가진 내면의 눈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철저히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오직 한 가지 대의(大義)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대의(大義)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눈길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에서 다른 대상으로 돌리게 하는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림살이와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 등에 관한 염려의 영이 결코 당신을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의 영은 소유물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순수한 영은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만을 요구합니다. 누가 심지어 뿌리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입히시고 먹이신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이 물질적인 것들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열중하는 사람들만이 재산과 염려의 영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법률적인 제도를 거부하는 결단입니다. 그들은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싸우느니 그들은 차라리 속옷과 겹옷을 벗어 줄 것입니다. 부탁 받은 도움을 거절하느니

차라리 시간을 넘겨가면서 일을 해주고, 오 리를 가게 하는 자와 함께 십 리를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불꽃이 발화되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마음과 목적이 한결같이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와 재판관 앞에서 하는 맹세를 포함해 어떠한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이나 화려한 표현 없이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명쾌합니다. 그래서 적대감과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오르는 내면의 열기로 대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저항하면서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원칙이 우리의 삶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싸웁니다.

사랑을 통한 선의 방법으로만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영역 또한 완전한 투명함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不貞)한 일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없으며, 정욕이 부추기는 잡다한 탐욕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오직 일편단심 헌신적인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이루는 일치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질을 하게 만드는 어떠한 탐욕도 그들에게는 철저히

게 죄로 인식되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한가지 법, 바로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의 법만을 알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다른 영들을 날카롭게 구분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에 ‘예’ 라고 말하거나 모든 것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연약함을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에는 명백하게 ‘예’ 라고 말할 것과 다른 모든 세력에는 명백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영들을 시험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일의 결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동물이 결정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리는 육식동물의 비열한 본성을 나타내고 희생적인 양은 결속과 희생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양의 본성은 전체 무리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탐내고 괴롭히고 강탈하고 죽이려는 육식동물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늘 희생할 태도로 사는 양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상산수훈에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든지 마음과 영적인 필요든지,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도록 애쓰십시오.’ 이것이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체계는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도록 부름 받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집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모임도 많은 결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 있어서 재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게 바로 삶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초인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와 비슷한 재능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이끌 것입니다. 이 악한 거만의 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서 이것을 철저히 내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

도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보다 적은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작은 자가 되도록 겸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날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간의 재능들이 완벽하게 조율되는 집단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냉철한 통찰력이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이 모든 외부 환경도 또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깊이와 육체적인 노동을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계선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에도 관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깊은 내면의 평화와 일치와 성령께서 인간 삶과 노동의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연약함이 표면화된다면 그만큼 모든 것이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관여하실수록 이 관통은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성령

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도록 하는 만큼, 사람을 섬기려는 우리의 대의(大義)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일과 삶의 모든 외적인 요소를 다스리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똑 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나 7장 다음에 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8장에 따르면 생명의 성령은 사망이라는 자연법칙 아래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극복하고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과 사랑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사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과 함께 우리의 눈을 종말에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눈부신 영광의 보좌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직 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세상인 이 미래를 감히 ‘지금’ 시작하는 것, 그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 속에 이미 지금 존재한다” (롬 14:17)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의지는 성령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우리의 일과 관계와 창조적인 능력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비밀인 내면의 눈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실생활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가장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서 해방된 행동의 단순함과 명쾌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꾸밈없고 단순하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의미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휘저어 놓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성령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것을 더 잘 관리하면 후세들도 그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도들이 전파하면서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은, 비록 수년 후가 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교회에 나와서 잘 곳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어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사람들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라’

단순한 사랑의 영이 선사하는 완전한 일치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모인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와 기쁨을 갖고서 서로에게 ‘평화와 일치’의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깊은 일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이 인간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요 4:18).

현재 경험과 장래 나라

16장

세레요한은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사회정의가 지배하는 장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길을 마련하고 싶어했습니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의 외침은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완전한 혁명을 요구합니다. 세레요한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죄악과 사회적인 죄악을 제거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고 평이한 도덕성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전적인 자기 포기가 사회정의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눅 3:11),”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새 삶을 발견하긴 했지만 세레 요한은 다른 이가 오셔서 성령으

로 세례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하게 하는 이 성령이 없이는 새 삶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이가 바로 오랫동안 갈망해 온 메시아요, 의로우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고대하던 이 구원자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선포 활동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채택하셨으며, 그 자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에 이끌려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했던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지상의 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한다면 새롭게 하는 바람이 우리 몸을 꿰뚫고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기쁨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영역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요 3:6).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장래 나라에 대한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영적인 생명의 도덕으로 새롭

게 변화될 때에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예언자적 진리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의 특징을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내면의 새로움을 얻을 수 없고 지상에서 장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산상수훈에서 명백히 밝혀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통 당하는 자, 궁핍히 여기는 자와 사랑을 베푸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 있다는 팔복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을 설교한 설교자의 뜻에 부합하는 이 지상 나라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수반되는 도덕적인 요구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상한 도덕률로도 절대적인 평화의지와 절대적인 사랑의 정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요구를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덜 도덕적인 분이셨습니다. 도덕주의나 어떤 강요보다 더 나은 새로운 정의는 소금과 빛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파고들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면 빛은 어두워질 것이고 소금은 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법칙에는 어떤 예외나 제한도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생명 에너지로서 결코 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살인적인 충동에서도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킨다거나 다른 사람과 불화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과 존중은 무엇보다도 약혼과 결혼생활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유일한 무기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가지는 진실한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 한 뺨을 맞고도 다른 뺨을 돌려 대며 속옷뿐 아니라 겹옷도 벗어주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과 원수를 똑같이 사랑하며 타인을 아낌없이 도우며 조건 없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을 이 사랑으로 흠뻑 적시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영은 진실과 정직과 단순함을 신고서 신선한 바람처럼 불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들썩한 활동을 언짢게 생각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남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단순하고 간결하십니다.

여기서 한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날카로운 단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은 맘몬의 영에 대항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분은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호히 결단된 마음, 즉 지고의 목표를 추구하며 자아를 극복한 영혼만이 이기주의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망하는 유일한 것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면 우리는 염려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내적 필요와 외적 필요에 민감해져서 우리 자신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참 의미가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삶 — 하나님의 미래 나라 — 을 유일하게 가능케 하는 내적 생명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만 이 미래 나라를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에서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거짓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천국비유 속에서 왜곡시킴으로써 더 이상 장래 나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나라가 영향을 끼치는 현재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비유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현재에만 국한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정되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묘사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 경험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사회정의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것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것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미 현재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체험은 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전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오히려 상황을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치유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들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믿는 것과 미래 그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적 경험의 강도는 둘 다 동일합니다. 둘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현재의 태도를 통해서 미래의 완전한 정의에 대한 기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원에 대한 참된 경험이 다 그렇듯이 이것은 결코 시간이라는 범주 속에서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가지고 어느 곳이나 단숨에

달려갑니다.

말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러한 경험은 자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완전한 사랑을 싹 트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의지가 원수의 영향에 노출된다면 염려와 재물과 맘몬이 그 생명을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생물의 유기적인 성장처럼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싹을 내고 계속 자랄수록 세상에 기쁨과 도움을 더욱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섬세한 영적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성령님이 어디에서 이런 소리 없는 활동을 펼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추어진 보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줍니다. 이런 삶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의 발효제처럼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발효제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될 때 그리고 그 효능이 완전히 유지될 때에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러한 절대적인 정신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현재적 경험과 장래 나라 사이의 일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사용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장래 나라의 광활한 땅과 도시들이 맡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보내집니다. 그들은 다가올 나라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무와 행위는 그리스도의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몸을 구원하고 돕는 일이며 고난 받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유혹이나 정치에서 권력을 쥐려는 유혹을 예수님처럼 극복해야 합니다(마 4:1). 이 모든 유혹은 하나님의 영에 어긋납니다. 그들은 굶주린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무방비 상태의 양같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적인 모든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들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사랑과 성령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영이 다른 모든 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의 자녀로서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사람들과 동네에 파괴하는 불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우신 유일한 불은 사랑의

붙입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 따뜻한 빛과 불만 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없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정복해야 할 저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확고부동한 의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타락하고 목은 인생이 질시 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새로운 생명을 방해하거나 파괴한다면 모두 미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좇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충고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것을 철저히 부정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축적을 통한 부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부유함을 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풍성할 수확이나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산이나 소유가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맘몬이라고 부르시는 돈은 단 한 가지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나누는 사랑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눅 16:9).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만이 삶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마 23:23).

누구든지 이 사랑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로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이 영이 살아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격렬하게 돌진해 들어와 폭풍우처럼 점령해 버립니다. 이 영은 어디에서나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으로서, 눌린 자와 노예 된 자와 포로 된 자에게는 해방의 소식으로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영은 차별과 증오를 이긴 승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와 무능력한 자가 초대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사랑과 정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가장 긍휼히 여

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과 편견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슴 아파합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선심 쓰듯이 기부를 하는 자선가의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상호의존 의식과 섬김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소명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리고 목마른 자와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 사랑의 영에 아주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도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찾고자 애쓸 뿐입니다. 누구든지 길가에 쓰러진 채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며,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풁니다.

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거나 자신 속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있어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애정과 실

제적인 섬김과 정직한 증보기도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수의 적대감이 법적 소송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제안해서 초기에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젊어져서 때 묻지 않은 순수성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강요 없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정서와 감수성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이다운 신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막 10:1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젊은 사람의 것이며 어린이다운 사람의 것입니다.

. 청년기는 걱정의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절대적이고 참되며 자발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혁명가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강탈하는 것처럼 빼앗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해 빼앗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맹렬하게 세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지진 때문에 산 채로 건물더미 아래 매몰된 사람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잔해를 파헤치는데 갑자기 작은 틈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들이닥칩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없지만 그 순간 그는 그토록 열망했던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신적인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자마자 영원의 힘이 현재의 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압도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17장

만약 우리에게 요구된 것들을 행하기에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호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에서 더없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령으로 입증된 그 생명의 능력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 위에 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분명하게 조명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요 14:26). 또한 성령은 장래 일을 계시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요 16:8).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성령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판은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판받음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이 임금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풍조이며 처

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 불리는 권력의 영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강제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그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요 지극히 선한 분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심판 받은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따르고자 원하는 자는 속임수와 거짓과 범죄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는 멸망이나 혹은 마귀의 어떠한 수작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곳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장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을 열어 보이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자인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 거짓과 음란의 영과 손을 잡으면 이 세상의 보좌를 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

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를 일깨우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 4: 4, 10).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래하심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과 생활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막 1:15).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비유로만 선포하지 않으셨

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의 뜻을 명백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말씀으로 진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3:3).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본질은 마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의와 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산상수훈은 보여줍니다. 이 의와 선은 어떠한 도덕이나 신학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합니다. 이 새로운 의(義)는 하나님의 활동이며 성령의 부으심이며 다가오는 빛의 핵심이며 소금의 짠 맛입니다. 이것은 실체이며 능력이며, 모든 면에서 생명이며 변화의 자유입니다.

이 새로운 의(義)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절인과 같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조차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시작됩니다. 원

수를 사랑하며 마지막 한 푼까지 나눠주며 폭력을 결코 무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랑에 순결과 성실함이 따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의(義)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사랑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염려가 이 사랑을 훼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데도 여전히 재산을 모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사람들 또한 부자들처럼 재물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의 눈길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재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통치를 간청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악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당신이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 마음속의 가장 거룩한 것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

론 당신은 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비난보다 더 큼니다. 그분은 죄지은 이의 마음을 흰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이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대하는 동일한 것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당신 삶에 있어 유일하고 참된 실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과 혼과 영을 당신 자신처럼 보살필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매우 적은 수일지라도 이 길을 계속 가십시오. 대적하는 영과 세력이 당신을 훼방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탈하는 본성으로 당신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양 같은 성품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이내 불 일듯 거세어졌습니다. 대적자들은 교활하고 간사한 신학논쟁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서 모함할 꼬투리를 잡느라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을 파송한 이후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

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논박하고 따지려고만 듣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가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가 드러난 곳이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마 22:1-14). 이 혼인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으므로 포도원의 일꾼과 비교됩니다. 비록 말로는 “아니오” 라고 할지라도 행위로는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씨가 심겨져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르려는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있을 때에만 사랑과 일치와 노동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옛 나라의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조각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보석,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반죽 속의 누룩과 같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어 갑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모든 것이 그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원수가 좋은 씨앗 사이에 나쁜 씨앗을 뿌릴지라도 강제로 뽑아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

뒤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를 닮아야 합니다. 반석처럼 강하고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묘사된 사랑과 기쁨을 가져야 하며, 열 처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하인과 종처럼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자기의 쾌락 속에 빠져서는 안 되며 대신에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성전에서 울부짖는 세리처럼 겸허하고 자만심이 없는 마음이 천국백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애타는 마음과 방탕한 아들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교의 자리로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양 떼가 있고 참된 목자가 있고 참된 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 개인을 사랑하고 또 전체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포도나무의 유기적인 일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개인이며 나무줄기는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짓 예언과 극명하게 대립시키시며 자신의 진리를 집약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악을 거절하고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일곱 가지 화(禍)를 외치십

니다(마 23:13).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버린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고 지상 최고의 국가와 교회의 적이 되어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는 일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 자체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친교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히 함께 사용하는 공동 생활 속에서 제자들을 인내로 품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매일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가르침도 주셨던 모든 담화(談話)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았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구들 사이에 계실 때, 그들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몸과 혼과 영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과 피부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마른 손 가진 자를 고치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나인성의 젊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어린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의 행하심은 하나님 나라

가 다가올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은 죽음의 영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연 환경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사천 명을 먹이시고 또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사랑의 표시로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표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은 외적인 치유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어떤 것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일이라면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그의 나라에 예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삶으로 향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8:11).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함께 치유하시면서 자신의 용서하시는 권세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용서는 치유이며 악의 제거입니다. 치유는 용서의 상징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악의 세력이 정복된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정복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면 죽음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산 자로 자신을 나타내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현존하심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교회의 성령은 하나입니다. 어디든지 사랑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실성입니다.